

사회



“하늘 높이 날아라” 20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내 쌍암공원에서 열린 ‘제8회 첨단가족 연 날리기 대회’에 참가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연을 날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브랜드 의류·가방·신발 유행 ... 자녀 ‘기’죽이기 싫어 ...

신학기 학부모들 허리 휨다

수십만원 지출까지 ... 비틀어진 소비문화 개선 시급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 브랜드 의류·가방·신발이 ‘필수 준비물’이라는 인식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아이들의 성화를 못이긴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무절제한 소비 풍조가 확산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주부 박모(42·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지난 19일 중학교 입학할 앞둔 딸과 함께 백화점에 들렀다 목돈을 지출해야 했다. 딸의 성화에 못이겨 이날 쓴 돈은 80여만원. N브랜드 아웃도어 점퍼 26만원, G브랜드 청바지 18만원, N브랜드 운동화 9만9000원, C브랜드 가방 6만9000원, 모자 달

린 티셔츠 2벌과 스킨·로션 값까지 총액이 80만원에 이르렀다. 박씨는 “아이가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유명 브랜드를 입는다고 버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내 딸이 기 죽거나 혹시나 ‘왕따’를 당할까봐 하는 수 없이 사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명 브랜드를 고집하는 아이와 씨름하기 싫어 돈을 손에 쥐어주는 부모도 적잖다. 20일 광주 시내 한 의류매장에서 만난 김모(16·고교 입학 예정)군은 “친구를 대부분 ‘메이커’를 입고 다니며 ‘이거 아니면 학교 못다닌다’ 했더니 부모님께서 선뜻 돈을 주셨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 시내 한 브랜드 매장에

김군이 이날 쓴 돈은 모두 50여만원. 한 번에 5~6명이 입는다는 N브랜드 아웃도어 점퍼 32만원, K브랜드 운동복 상하의 20만원을 지출했다. 일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명품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화 때문에 지갑을 열고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사교육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처지에 아이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목돈을 쓰는 게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경제관념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의 부담도 크다. 그럼에도 유명 브랜드들은 학생팬 층이 두터운 아이돌 스타를 내세워 학생들의 소비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실제 광주 시내 한 브랜드 매장에

서는 옷과 가방을 사러 온 학생들에게 “요즘 친구들이 제품을 많이 입는다”, “학생들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며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 매장 관계자는 “요즘 청소년들 대상의 매출이 30% 가량을 차지한다”며 “비싼 브랜드라서 우려되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유행이 매장 입장에서 고마운 셈”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일깨우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임진희 사무국장은 “학생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유명 브랜드의 비틀어진 상흔을 바로잡으려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건전한 소비의식을 심어주는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서구청 좌천인사 잡음

“前 청장이 새청사 발주해 재정난 심각” 발표
담당직원 “건립 차질 없다” 해명하자 洞 전보

광주시 서구의 부작질한 행정 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구는 전임 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가 하면, 관련 공무원들을 동사무소로 전보시켜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서구는 지난 10일 ‘서구, 신청사 건립으로 재정난 가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이 팽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서구청이 이처럼 청장을 공격하기 위한 데 대해 전임 구청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신청사 건립이 주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구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내용 자체가 보도자료의 성격으로서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전임 청장을 공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언론의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 단장 유모(5급)씨와 계장 이모(6급)씨가 “신청사 건립은 별다른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자, 며칠 후 예정에 없이 이 두사람을 인사 조치했다. 예초 서구는 7급 이하(지난 18일) 전보 인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신청사건립과 관계된 고위직인 5·6급 직원을 각각 동사무소로 인사조치한 것. 7급 이하 대상(6급 승진 1명 포함) 인사인 데다 신청사 건립 완공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최고 담당자들을 바꾸는 상식 밖의 인사조치를 하면서 구청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김종식 서구 청장은 지난 15일 구정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생활현장 순회방문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동행 하루 만에 순회방문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구 전체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말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한 조치”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 직원이 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장수만 전 방사청장 이번 주중 사전영장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검사 여환섭)는 비리 연루 의혹을 받은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이번 주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청장은 지난 1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19일 새벽 귀국했다. 장 전 청장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액을 수수하고,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에게서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차장서 3세 여아 택시 치여 숨져

차체 결함 여부 조사
20일 오후 3시경 광주시 동구 운산동 한 가스충전소 내 세차장에서 이모(3)양이 박모(60)씨가 몰던 SM5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이양은 내부 세차를 위해 차문을 모두 열어둔 이양 아버지의 소나타 차량 왼쪽 앞문과 뒷문 사이에서 있다가 뒤에서 돌진한 박씨의 차량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세차기에서 빠져나와 내부 청소를 위해 우회전했는데,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앞으로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굉음이 아닌, ‘따따따’ 하는 소리만 들렸다”는 이양 아버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 등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결과 박씨의 택시가 시속 5~10km 속도로 10m 가량 주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차체 결함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정밀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추락사·화재·교통사고 잇따라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화재와 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0일 새벽 2시50분께 순천시 흥내동에 사는 이모(77) 할머니의 집에서 불이나 내부면적 100㎡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6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이 할머니의 아들이 술을 마시고 거실 바닥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19일 오후 3시20분께에는 영광군 염산면 아월리에 사는 홍모(88) 할머니가 마을 앞 수로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9일 오후 8시10분께에는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삼암마을 앞 도로에서 문모(59)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110% 상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가던 중 갖길에 주차된 김모(44)씨의 1t 화물차를 추돌해 문씨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한모(65)씨가 숨지고 또 다른 동승자 2명이 다쳤다. 또 같은 날 새벽 2시40분께에는 순천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고속도로를 건너던 전모(여·42)씨가 김모(22)씨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대리비보다 보험금이 훨씬 짝퉁”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대표와 대리기사 등 10명이 경찰서 행. ○·20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목포 A대리운전 업체 대표 임모(34)씨 등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5시께 목포 시 상동 B마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김모(30)씨의 승용차와 고의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험사 10곳으로부터 보험금 1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 ○·임씨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입이 잘 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대리업체 대표·대리운전기사 등 9명과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밤새 고생하는 것보다 사고 한 번만 치면 수십만원을 벌 수 있다는 욕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학교-유해시설 거리는 출입구 기준”

대법원 판결
PC방 등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리를 따질 때는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 주변에 PC방 개설을 허가해 달라며 이모(56)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PC방 이용객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PC방 시설이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시설(전용출입구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용시설이 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 소재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다가 PC방이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C방이 속한 상가에서 학교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200m 이내라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PC방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m를 벗어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훔쳤다”

100차려 절도 ... 범행대상 너무 많아 기억도 못해
북부경찰 30대 검거
‘생계’를 위해 남의 물건을 훔쳐온 상습 절도범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너무 많아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에 사는 문모(34)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 김모(35)씨의 수퍼에 침입해 담배 20갑을 몰래 가져가는 등 2009년 12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회에 걸쳐 광주와 전남지역 빈집·수퍼·옷가게 등을 털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림수산,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검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별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역, 관리, 행정, 행정, 관리, 헌법, 회계, 경제, 교육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 소망직 (전문) 시정청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